

간호원과 아내와 어머니



~ 一人 三役의 ~

<우석의대병원 간호원장> 이 숙 희

解放後 우리나라 職業女性들의 數는 날로 增加하여 社會活動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으며 特히 既婚女性들의 社會進出은 여러가지의 變遷을 가져왔다.

첫째 複雜했던 부엌施設이 차츰 簡素化되어 不必要한 Energy와 時間을 節約할 줄 알게 되었고 거치장 스타일 服裝들이 簡便한 옷차림으로 바뀌는 한편 Apartment의 需要者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既婚女性들이 차차 8時間의 職場生活을 爲해 집안살림을 簡素化하고 構造를 바꾸어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징조인 것이다.

그 職業의 種類는 어떤 것이던간에 自己 나름대로의 職業을 통해 自己 個性을 살리고 또 家庭에도 보탬을 주자는 意圖에서 이렇게 일을 찾는 것은 꽤 多幸한 일인 것 같다.

우리 看護協會에 登錄한 會員의 動態만 보더라도 5,494名の 會員中 거의 半數에 達하는 2,125名이 既婚者임은 注目할만한 事實이다.

특히 各種 女性職業 中에서도 우리 看護職이란 어디까지나 專門的인 敎育과 熟練된 技術이 要求되는 專門職이니 만큼 한사람의 完全한 看護員이 되기까지에는 長時日이 要한다.

적어도 高等學校 卒業 後 3~4年 間의 看護學科나 看護學校는 마쳐야 하고 또 臨床에서 익숙해지기에는 적어도 1~2年은 걸리게 되니 한사람의 완숙한 간호원이 되려면 自然 結婚 適齡期에 이르게 된다.

이에서 職場에는 既婚者의 數가 늘어가고 “家庭과 職場”을 겸한 “看護員과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一人 三役의 重責을 어떻게 무난히 處理해나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問題로 대두된 것이다.

看護員은 看護敎育을 통해서 奉仕와 博愛精神을 배워왔고 한 人間의 尊嚴한 生命을 다루는 嚴肅한 職責임을 느껴 왔기에 自己 職務에만 충실하기를 익혀 왔다.

그러나 일단 結婚을 하고 한 家庭

의主婦로서 아내와 어머니의 役까지를 併行시켜 나가기엔 많은 苦衷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一般的으로 既婚女性으로서 看護職을 갖는 動機(motivation)는 自己가 지니고 있는 特殊한 技術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 慾望과 患者를 위해 일해 보겠다는 意慾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8時間의 duty를 통해 自己 自身들의 生活에 經濟的인 도움을 주자는데에도 基因하리라 본다.

이는 現 우리나라 經濟發展에도 보탬이 되어지리라 보며 國民의 個人所得率을 높이는 데도 좋은 계기가 되어지리라 생각한다.

나는 日前에 어느 거리에서 내가 몹시 사랑하던 後輩의 男便을 만난 일이 있다. 그는 나를 보자 반가운 듯이 인사를 하며 結婚한지 一年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내는 病院에 對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先生님께서 어떻게 敎育을 시키셨기에 그러십니까?”

하며 閒談을 해와 서로 웃어넘긴 일이 있다. 이같이 看護職이란 어떤 妙한 매력이 있어서 한번 看護員이 되면 좁처럼 떠나기 힘든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 죽어가는 患者를 誠意껏 看護하여 健康한 몸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기쁨과 보람을 저버릴 수가 없는 탓인가 보다.

그러나 일단 한 家庭의 主婦로서 아내가 되었을 때는 전보다 더 부지



런하고 재빠르지 않으면 家庭을 떠나 職場에서 勤務하는 8時間 동안의 家事의 空白을 메꾸어 나가기가 힘들 것이다.

職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家庭에는 등한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家庭과 家族들에게 더욱 細心한 關心을 기울여야 된다.

자칫하면 일어나기 쉬운 疲勞에서 오는 짜증이나 방임은 삼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늘 營養이나 休息에 留意하여 健康에 힘을 것이고 疲勞한 빛을 보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家族들은 家族들대로 各者 自己의 일은 自己 自身이 處理하도록 하고 어려운 일은 서로 분담하여 마치도록 해서 職場에 나가서도 집 안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協助해 주어야 한다.

또 해산을 하고 어머니가 되면서 부머는 더욱 바빠지고 힘들게 마련이다.

元來 發育途上에 있는 아기가 있는 어머니로서 職業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지만 특히 10살까지는 한 人間의 性格形成이 이루어지는 時期이므로 重要視된다.

勿論 各個人의 育兒計劃에 따라 다르겠지만 可能한 限 育兒에게 必要한 時間을 除外한 適當한 時間에 勤務하는 게 좋겠다.

특히 看護員들은 育兒와 看護에 익숙하므로 빠른 時間內에 아기를 돌볼 수 있으니 그 대신 勤務時間을 除外한 모든 時間은 아기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最大의 努力이 必要하게 된다.

아기들의 所望은 얼마가 自己에게 얼마만큼의 關心과 愛情을 베푸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程度에 따라 成長度가 달라진다고까지 하니 각별한 準備와 計劃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10歲 以後의 學校生活이 始作되면서부터는 自己 스스로의 일을 自己가 整理해 나갈 수 있는 訓練을 시키게 되는데 이 때부터는 엄마의 職業에 對한 좋은 "Image"를 갖도록 해 주는 것도 重要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잘 理解할 수 있도록 親切한 指導가 必要하며 그 아이 自身이 할 수 있는 일까지 公연히 神經을 쓰는 "過剩關心

事"는 學童期의 兒童들에게는 禁物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알아서 하려니 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일이니 兒童들의 必理를 잘 파악하여 適切히 다루어야 한다.

看護部分을 擔當하는 專門職에 있어서도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綜合病院의 여러 階層의 專門看護員, 卒業看護員, 保健管理要員, 保健啓蒙員, 學校教師, 保健行政職, 保健事務職, 養護教師 등 많은 分野를 차지하고 있으니 잘 검토하여 自己 適性에 맞는 職場을 擇할 것이 重要하다고 본다.

自己 能力에 過分하거나 맞지 않는 일을 擔當했다가 제대로 遂行하지 못하는 이보다는 아내와 어머니와 看護員의 세가지를 併行시킬 수 있는 範圍內에서 일자리를 擇하는 것이 賢明한 일이다.

이와같이 看護員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役割을 함께 併行시켜 나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職場에 있는 8時間만은 충실히 患者를 돌봐 주고 그 後의 時間은 家庭으로 돌아가 아내와 어머니로서 家庭의 主人公이 되도록 萬全을 기한다면 우리 看護界는 勿論 우리 社會까지도 明朗해질 것이다.

× × × ×